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6호 【루게 제24599호】 주제 103 (2014)년 7월 5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 전투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 전투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인 육군대장 변인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은 이미 작성한 섬상륙 전투계획의 현실적가능성을 확정하고 수정보충하며 각급 부대들에서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한층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섬상륙전투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들의 전투원들과 각종 구경의 포들, 잠수함을 비롯한 전투함선들, 추격기, 폭격기, 수송기편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인 육군상장 박정천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대장 리병철동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상장 김명식동지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훈련진행계획에 대



내들면 대포를 내대시며 원수들의 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짓밟아버리시는 혁명적신념과 배장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은동지를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 훈련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훈련을 통하여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타격강도와 타격계선에는 한계가 없으며 우리 식의 성전, 우리 식의 보복타격에서 살아남을 원수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단 한놈도 없다는것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제전법의 요구가 그대로 구현된 섬상륙전투훈련이 잘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함을 라시고 바다에 나가시어 전투함선들을 사열하시며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력사는 총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 보고를 청취하시어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훈련장은 불타는 화약마냥 활화산같이 노호했다.

강철포신들에서 연속 날아가는 시벨린 불줄기들,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비행대들과 물갈기를 세차게 날리며 돌진하는 해군함정들, 바다속을 헤가르는 잠수함에서 뿜어진 증오와 복수의 명중탄들로 하여 하늘땅, 바다가 세차게 뒤흔들렸다.

《적》들이 도사린 섬에서 삼단같은 불기둥이 연해연방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현

대전의 요구에 맞게 잘 제인 협동작전으로 연속 강타를 틀어대는것을 보시고 타격시기를 바로 정하고 신속성, 정확성, 일치성을 보장하여 집중화력타격을 틀어대면 적들을 초절입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섬에 대한 강력한 화력타격에 이어 항공특전병들의 전투행동과 배합한 보병의 섬상륙전투가 진행되였다.

불시에 나타나 섬으로 벵벵이 돌입한 고속함정들에서 전투원들이 날랜 동작으로 뛰어내려 해안에 등륙하였으며 구름을 뚫고 내려온 수송기들에서 항공특전병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일당백전투원들은 평시에 련마한 전투조법과 동작을 원만히 수행하며 《적》진을 향해 비호같이 달려들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쌍안경으로 전투원들이 섬을 벵벵이 타고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잘한다고, 싸움준비에서 래일이면 늦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해온 일당백싸움군들이 다르다고 치하하시였다.

섬을 완전히 점령하였다는 전투결속 신호탄들이 날아올랐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2 면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 전투 훈련을 지도 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인민군대에서 군력강화의 기본인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적식화, 멋따기를 철저히 없애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훈련도 전투라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오늘 진행한것과 같은 훈련을 많이 조직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군이 원수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사회주의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신성한 우리 조국의 서남전선 해역은 한줌도 못되는 적들때문에 때때로 위협을 받고있다고, 얼마전에도 적들이 갈겨댄 포탄이 우리 령해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있었다는것을 상기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를 매우 엄중시하며 단단히 버르고있다고, 원수들이 열점수역에서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번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드실것이라고 준철히 전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가르치심과 믿음을 받아안은 인민군장병들은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의 무리들이 감히 신성한 우리 조국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위협하며 설치댄다면 억척같이 다저온 우리 혁명무력의 초강도타격으로 국악무도한 원수들의 소굴을 불마당질해버리고야말 멸적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륙 전투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을 성실성으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저한 관심을 받고 국가과학원과 평성대의 녀맹원들, 청년동맹원들은 건설초기부터 돌격대들을 꾸리고 적극적인 지원전투를 벌리고있으며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고있다.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일 일념과 건설장으로서 달려간 욕망과건설자양성사업소 파장들인 리세인, 김철봉은 이신작적으로 대충을 이끌면서 힘있는 지원으로 그들의 전투적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지명원 김영진도 결매있는 조직지휘와 통이 큰 후방사업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의사 장명화는 전투현장에서 예방치료에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건설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과학자, 기술자들을 최상으로 우대해주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충성의 한마음을 간직하고 국가과학원 실장 윤영, 연구사들인 허정혁, 남명일은 새 거리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리파대학 교원 김광혁, 사서 조현희는 들끓는 전투장에서 건설자들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국가과

학원 로동자 리창희도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전쟁로병의 딸답게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언제나 앞장선 평안남도 대봉상점 로동자 김혜숙은 성의있는 지원으로 건설자들을 위훈장으로 고무하였다.

원산지 풍하동 76인민반 원길선은 당의 뜻을 받들어 새 과학자거리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을 안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줌으로써 병사들의 어머니로 존경받고있다.

선군의 총대우에 가경의 행복도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근 40년간 원군길을 걸어온 최창국 석화로동자주 26인민반 김영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판철해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봉화대의건설자양성사업소 통역원 최정혁, 봉화 인민유원지관리소 로동자 김진숙, 평안남도지방건설건설관리국 도시건설리단 참모 연평혁, 평안남도교리병원 로동자 강국도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의 편지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성과학자거리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여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에 더 새차게 타오르게 하는데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본사기자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까부 웨르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까부 웨르드공화국 대통령  
**조르주 까를로스 폰세카카하**

나는 까부 웨르드독립 및 공화국선로 39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7월 1일 평양

## 선군정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백승의 보검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우리 혁명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는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로라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를 발표하신 1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90(2001)년 7월 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는 선군정치방식이 창조되게 된 역사적경위와 그 뿌리, 선군정치의 본질과 독창성,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 로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당의 선군명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새겨안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명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으뜸가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을 우리 리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며 그 어떤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입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가능여러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무적의 군력을 가진 사회주의보루로 굳건히 솟아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실 독창성,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 로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당의 선군명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새겨안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명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으뜸가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 부강번영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필승의 보검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 부강번영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필승의 보검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제국주의와 치렬한 대결을 동반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강해지고 우리 인민이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침략전쟁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리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반제국주의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어야 한다는 혁명적주요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우리의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 총대가 강해야 우리 인민이 피롤레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는 선군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전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의 자욱은 초도와 오성산, 철령을 비롯한 조국방선초소마다 령령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수명결사옹위의 총독관대로 튼튼히 준비되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도도 감히 범접 못하는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적들이 우리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백두산총대의 불바람으로 적들의 아성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릴 필적의 각오로 만장약된 인민군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언제나 금성철벽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인 군민대결을 더욱 강화해나가게 하는 단결의 정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나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우는데서 인민군대가 혁명적기치를 대대히 가르쳐주시고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인민군대가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진군의 돌격로를 열어제끼고 인민은 군대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생활방식을 따라배우며 창조와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는 우리의 군민대결의 위력이 더욱 높이 펼쳐질수 있게 한 근본비결이었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군민대결을 튼튼한 기초로 하고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군민대결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위대한 보검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끊임없는 기적을 안아오게 하는 부강번영의 무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명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판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랑떨쳐왔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선군명도따라 불굴의 정신력으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기적을 창조하며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최근년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과는 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육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과학, 교육, 체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전방적면에서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게 된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명지시리듬 단숨에의 정신으로 무조건 끝까지 결사판철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파강한 공격정신, 대담하고 혁신적인 창조기풍, 전격적인 투쟁기풍은 그대로 강성번영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는 한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철철같이 뭉쳐오르는 충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윤철희





